


구급소생법을 마스터하자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약 6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심장이 멈추고 난 다음 1분마다, 구명율은 7~10%씩 낮아집니다.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구급소생법을 마스터합시다.

1차 구명처치의 순서


1 반응이 있는가를 확인
우선 반응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괜찮아요?" 등과 같이 큰소리로 부르면서 부상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다.




2 119번 신고와 AED 준비
불러도 반응이 없으면 "반응 없음". 큰소리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119번에 신고해 주세요", "AED를 찾아서 가져다 주십시오" 등과 같이 지시하여 협조를 구한다. 주위에 아무도 없을 경우에는 본인이 119번에 신고한다.



3 호흡을 확인
환자의 흉부와 복부를 보고, 호흡을 확인한다. 오르내림이 있으면 「호흡 있음」으로 판단. 움직임이 없거나, 또는 평소와는 다른 움직임(흐느껴 울듯이 떠엄떠엄 호흡이 있는 경우)이면 「호흡 없음」으로 판단하고, 즉시 흉골압박을 행한다.



4 흉골압박
①흉부 정중앙 (좌우·상하의 정중앙) 을 기준으로 하여, 양손의 손바닥 아래부분을 포개어 놓는다. 손가락은 깍지를 껴도 괜찮다. 어린이의 경우는 한손이라도 무방하다. 갓난아이의 경우는 손가락 2개를 사용한다.
②양쪽 팔꿈치를 곧게 펴고, 어깨가 손바닥의 수직상방에 오도록 자세를 취한다.
③환자의 흉부가 약 5cm (어린이·갓난아이의 경우는 흉부 두께의 3분의 1 이상) 내려갈 정도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을 반복한다. 압박의 템포는 '1분간에 100~120회'를 기준으로 한다.
④압박과 압박의 사이에는, 흉부가 원래 높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충분히 압박을 풀어준다.



5 흉골압박과 인공호흡의 조합
「흉골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의 조합으로, 구급대원이나 AED가 도착할 때까지 반복한다. 인공호흡은 생략하고, 흉골압박만을 반복해도 된다.

- 1분간에 100~120회의 템포
- 흉부가 약 5cm 내려가도록
- 심폐소생은, 흉골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1사이클로 하여 실시.

※구강대 구강법을 하지 않고도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감염 방지구가 있다면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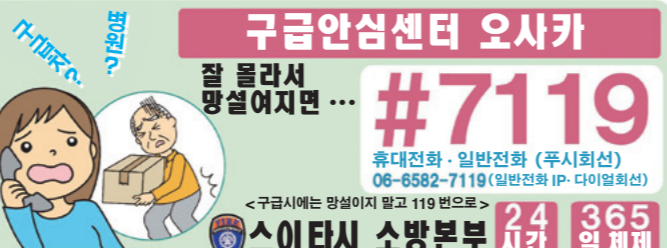
인공호흡 방법

- ①한손으로 환자의 이마를 누르면서, 다른 한손의 손가락 끝을 턱끝에 대고 들어 올린다 (기도확보).
- ②이마를 누르고 있던 손으로 환자의 코를 쥐고, 입을 크게 벌려 입을 밀착시킨다.
- ③부상자의 흉부가 올라올 정도로, 1초에 걸쳐 숨을 불어 넣는다.
- ④입을 떼고, 환자의 숨이 자연스럽게 나오기를 기다린다. 그 다음에 2회째의 불어 넣기를 실시한다.

※잘 되지 않거나 입에 입을 직접 대는 것 자체가 힘든 경우는 흉골압박만 반복한다.
※구강대 구강법을 하지 않고도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감염 방지구가 있다면 사용한다.



구급안심센터 오사카
잘 몰라서 망설여지면... **#7119**
휴대전화·일반전화 (푸시회선) 06-6582-7119 (일반전화 IP·다이얼회선)
<구급시에는 망설이지 말고 119번으로>
스이타시 소방본부 **24시간 365일** 제재



AED사용법을 마스터하자

AED (자동체외식 제세동기) 는, 심장이 정지된 환자를 구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심장의 펌프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으므로, 사용방법을 마스터합시다.

AED 사용순서

- 9 심전도 해석**
전극패드를 붙이면, 환자로부터 떨어져 있으라는 음성메시지가 나오며, 제세동의 필요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심전도의 해석이 시작된다 (「해석 버튼」을 누를 필요가 있는 기종도 있다).
- 10 전기쇼크 실시**
자동해석으로 전기쇼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음성메시지에 따라 조작한다. 환자의 몸에 아무도 접촉되어 있지 않은 것을 재확인하고, 제세동 버튼을 누른다. 전기 쇼크가 완료되면, 음성메시지에 따라, 즉시 ⑥의 심폐소생을 개시한다.
※제세동을 실시하면, 환자의 전신 근육이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움직인다.
- 11 심폐소생과 AED를 반복**
⑪의 전기쇼크 완료 후
⑩의 결과로 「전기쇼크가 필요 없음」 등의 음성메시지가 나온 경우 위의 어느 경우라도, 즉시 ⑥의 심폐소생을 실시한다. 심폐소생을 개시하여 2분 (흉골압박 30회, 인공 호흡 2회를 5사이클 정도) 경과되면, AED가 자동적으로 심전도 해석을 시작해, 재차 「쇼크의 필요 유무」의 지시가 나온다. 쇼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구급대원이나 의사가 도착할 때까지, 이러한 순서 (전기쇼크 1회→심폐소생 2분간)로 반복한다. 도중에, 정상적인 호흡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심폐소생을 중지한다. 회복체위 (AED를 붙인 채 몸이 옆을 보게 누인다)로 하여 계속 관찰한다.
※「쇼크 불필요」의 메시지가 나와도, 정상적인 호흡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을 계속한다.

8 전극패드 부착
상자에서 2개의 전극패드를 꺼내어, 흉부의 우상측 (쇄골 아래이며 흉골의 오른쪽) 과 흉부의 좌하측 (겨드랑이 밑 5~8cm 아래) 에, 빈틈이 안 생기게 붙인다. 자세한 위치는, 전극패드 자체나 들어 있던 상자에 표시되어 있다.
※기종에 따라서는, 패드 케이블을 AED 본체에 꽂을 필요가 있다.

7 덮개를 연다 (전원이 켜진다)
덮개를 열면 자동적으로 전원이 켜진다. 그 다음은, 음성의 지시에 따라 조작한다.
※기종에 따라서는, AED본체를 케이스에서 꺼내어, 전원 스위치를 누르는 것도 있다.
※AED의 대상자는, 갑자기 심장정지가 일어난 환자이다. 의식도 호흡도 없는 사람이 대상이다.

6 AED 준비
AED를 환자의 흉부 왼쪽에 놓는다. AED에서 음성메시지와 점멸 램프로, 구조자가 해야 할 사항이 지시된다. 침착하게 그 지시에 따른다.

5 구급 의료정보 키트 배포사업
구급 의료정보 키트란 ~긴급사태 시에 필요한 정보를 냉장고에서~
독거 고령자 등의 안심·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치의 또는 지병 등에 관한 의료정보나 긴급연락처 등의 정보를 전용용기에 넣어 자택의 냉장고에 보관해 둬으로써, 만일의 긴급사태에 대비합니다.
「긴급사태」시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키트의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적절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으며, 가족분들께 연락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배포 대상에 해당하는 분
· 대략 65세 이상의 독거 고령자
· 대략 65세 이상의 고령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사람
· 낮 동안 홀로 지내는 경우가 있는, 대략 65세 이상의 고령자
신청방법·배포장소
창구에서 신청서에 기입하시면, 키트를 지급해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복지부 고령복지실



※오사카부의 AED지도를 참조하십시오 (http://osakaaed.jp/). 스이타시 공공시설의 AED설치장소는, 권말 방재 맵을 참조해 주십시오.

지진·지진해일

화재

풍수재해·토사재해

도시형재해

평상시의 대비

지역방재

방재지도